

의미분석법을 활용한 대학생의 복지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원식*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이미지를 오스굿(Osgood, C. E.)의 의미분석법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한 복지이미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복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요소구성 특성별 측정법 중에서 의미차별법에 의한 연구는 그 간의 복지 인식이나 복지이미지 관련 연구들과는 차별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특성 용어를 통한 복지이미지를 분석해 요인 도출 및 명명과 분류 검증을 시도한다. 또한 복지이미지의 전반적 인식,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원별 비교를 통해 대학생들의 복지 인식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복지이미지의 하위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은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활동 차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인구특성상 평균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에 대한 성별, 연령, 소속 학문 계열, 학년, 장애 희망 분야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에 대해서는 연령, 학년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주제어 !

복지, 복지이미지, 복지 인식, 의미분석법, 의미차별법

* 금강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사회복지학) 교수

I. 서론

한국에서 복지는 대중의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정책으로 수렴되는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정치사회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관련 연구도 일천한 편에 속한다(김희자, 2013:60). 그 이유로는 복지인식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구조기능적 요인(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정권유지 또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회복지를 도입하고 확대해 왔다. 복지는 정권과 정치권 주도, 즉 복지포퓰리즘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내세우는 태도나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복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복지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복지 인식의 사전조사 성격 차원에서 필요하고 의미가 있으나,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복지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미지, 조직이미지, 행정이미지, 불교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차용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측정법은 전반적 이미지 측정법과 요소구성 특성별 측정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요소구성 특성별 측정은 다시 의미차별법¹⁾과 다속성 태도 모델²⁾로 구분할 수 있다(이혜경, 2007:34).

1) 의미차별법은 오스굿(Osgood, C. E.)이 주장한 자극의 의미를 측정한 방법이다. 어떤 개념의 정서적 의미, 내포적 의미를 삼차원의 의미 공간에서 양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며, 어떤 자극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따위의 형용사로 구성된 기준을 써서 자극의 의미를 측정한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대상을 평가하여 각 형용사에 대한 평균을 구하며, 이미지에 대한 개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측정방법의 간편함과 도표화 및 이미지 추이를 알기 쉬고 신뢰성 높다. 그러나, 후광효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 결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이 모델은 소비자 또는 시민이 상품이나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둘 이상의 속성을 평가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고 가정하는 이미지 측정법이다. 그러나 충분한

본 연구는 의미 차별법의 대표적인 오스굿(Osgood, C. E.)의 의미 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을 차용하여 사전조사의 성격으로 대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이미지 측정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의미 분석법은 오스굿(Osgood, C. E. 1957) 등이 발전시킨 심리측정의 한 방법이며, 다양한 사물, 인간, 사상, 사건 등에 관한 개념의 의미를 공간 속에서 측정하려는 것이다. 즉, 한 개념의 의미를 양극단의 대비 형용사군에 의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방향, 거리 강도를 갖는 의미공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다(김광웅, 2008:3).

본 연구는 특성용어를 통한 복지이미지의 차원별 요인 도출과 검증, 복지이미지의 차원별 일반적 인식, 그리고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차원별 평균을 비교해서 대학생들의 복지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이미지의 의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또한 오스굿의 의미분석법을 토대로 한 조사설계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성용어를 통한 대학생들의 복지이미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용어를 통한 대학생들의 복지이미지의 차원별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생들의 복지이미지의 차원별 일반적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소속대학, 소속학문계열, 학년, 장래희망분야에 따른 차원별 평균 비교를 통해 대학생들의 복지이미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복지의 개념

오늘날 사회복지란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릴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안정과 사회통합에 노력해야 할 책무성을 갖는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사회적인 활동이다(박광준, 2013:13). 사회복지 개념은 인간(개인)이 사회(조직)에 부적응하는 문제를 규정하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이다. 후루가와(古川孝順, 1999: 19-20)는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생활상의 어려움과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고 경감 또는 완화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에 의해 시행되는 원조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古川孝順, 1999: 19-20).

오늘날 사회복지의 양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시행 방법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대에 따라 또는 개별 국가의 조건에 따라 다양성을 보인다. 각 국가는 산업발전의 정도, 정치체제, 종교, 문화, 가족구조, 생활양식이나 의식의 차이에 따라 각 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내포하는 특유의 사회복지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사회복지란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욕구의 충족,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대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적응으로의 지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는 점에 어느 정도 일치점을 보인다.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사회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방

편으로 3유형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모델은 티트머스(R. M. Titmuss)가 설정한 모델이며, 잔여적복지모델, 산업업적달성모델, 제도적재분배모델이다(古川孝順, 1999: 22-23). 티트머스의 모델은 사회복지개념의 역사적 관점의 변화를 잘 정리해 주고 있으며,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1> 사회복지의 개념 모델

잔여적복지모델	산업업적달성모델	제도적재분배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랜스키와 르보의 잔여적복지모델을 원용하고 있음. * 영국의 구빈법과 자선사업 * 개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충족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조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 권리성이 약하고 낙인이 동반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욕구는 업적 성취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정도에 기초하여 충족된다. * 노령연금의 경우 고령자가 국가, 사회, 기업 등에서 달성한 업적의 정도에 상응해서 소득 배분하려는 제도이다. * 관료, 군인에 대한 연금, 기업 근로자연금. * 생산력 향상, 사회적 기여 정도에 상응하는 복지가 강조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부의 불평등을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공정의 견지에서 재분배하여 사회통합을 지향. * 자원의 지배구조 내부에 재분배시스템을 도입한 모델 * 2차 대전 후 영국의 복지국가 성립기 이후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제도화 된 많은 사회복지정책 * 권리성이 높고 인권이 강조된다.

자료: 古川孝順, 1999: 22-23. 재구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회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대책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일이다. 그 때부터 정부는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제도화 되었고, 많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왔다.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가 도출되고 복잡다단해지면서 사회복지의 시대적 당위성 등과 맞물려 그 범위와 범주가 커졌고, 개념 또한 한정지우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복지의 인간의 자유와 개인의 자립 속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정책의 개념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김상규,

1984:25-26).

2. 복지 인식 경향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대로부터 근대 이전까지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 불리는 무의탁 고령자와 무의탁 부녀자, 고아, 고립무원(孤立無援)의 백성을 호애안민(好愛安民)의 사상으로 보호해 왔다. 또한, 전시(戰時) 및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대비하여 다양한 창(倉)제도를 운영하였고, 진대(賑貸)사업과 구료(救療)사업을 전개하여 백성을 보호하고자 했다.

조선말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항과 자주적인 근대산업화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한편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장기간의 군사정권과 민주화 운동 등 혼란과 위기를 직면한다. 다른 한편,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산업화 과정에서 표출된 노동자계급의 분배 요구를 묵살할 수 없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88올림픽과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복지 재구조화가 진행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서구선진복지국가들과 공통의 사회복지 관련법 및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동북아시아 공통의 전통적인 사상적 특질이 잔존하고 있다.

복지에 관한 개념 정의는 시대에 따라 또는 학자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한다. 사회복지개념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지를 주체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이며, 이러한 복지를 정부가 대응해 온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윤문구, 1998:341). 결국, 사회복지를 역사주의적 복지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며,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윤석경·권정만, 2015).

〈표 2〉 사회복지에서 복지에 대한 개념(또는 인식)

구분	내용
영어표현	welfare
사전적 해석	국민(시민)의 안녕이나 번영
대상(수혜자)	모든 국민(시민)
복지를 베푸는 주체(원천)	국가(또는 정부), 비영리 복지법인
수단	복지정책, 복지서비스 관련 법·제도

※ 참고: 윤석경·권정만, 2015

또한, 복지는 남을 의식하고 내집단에 의해 평가된 복지 인식에 의존하는 경향과 이웃(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인식하는 극단적 평등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명분(또는 체면)을 중시하는 복지에 대한 수용과 복지문제에 대한 이중성을 보이는 등 복지에 대한 인식(권정만·김학만, 2015)은 매우 다층적이고 다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복지국가체제는 경제 불황과 연계되어 위기를 맞고 있다.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이 복지국가체제의 내적인 모순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윌리엄스(Williams, 1989)는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반집합주의, 사회개혁주의, 그리고 복지의 정치경제라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과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복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유형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	정치적 전통, 인물
반집합주의	복지는 개인의 자유, 창의 선택을 제한하고 과도한 복지수요를 만들어 낸다. 복지는 가족 등의 비공식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의 자유, 경제적 자유주의, 우익, 신우익 (Hayek, Friedman)
사회개혁주의	비집합주의적 복지집합주의	정치적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Beveridge, Keynes, Pinker, Owen)
	페비안사회주의	복지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사회민주주의,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사적 시장의 불평등 현상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폐비안사회주의 (Tawney, Titmuss)
급진적 사회행정	복지국가는 부와 자원의 급진적 재분배, 그리고 평등의 추구로 구성되는 사회적으로 계획된 사회의 중핵이다.	폐비안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막시즘 (Townsend, Walker)
복지의 정치경제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자계급 간의 근본적인 갈등의 결과이지만,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복지욕구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막시즘 (Gough, Offe)

※ 출처: Williams, 1989: 16, 박광준. 2013: 215. 재인용.

본고에서 복지 개념에 주목하는 이유는 복지제도나 정책이 국가책임의 원리에 따라 실시될 경우 그것을 추진 또는 용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이러한 합의를 지지하는 일정의 복지관(福祉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설계

오스굿(Osgood, C. E.)의 의미 분석법(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은 미국 일리노이스대학교(Illinois University)에서 오스굿과 그 동료들(1957)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의미 분석법은 “여러 사물, 인간, 사상 등에 관한 개념의 의미를 의미 공간(semantic space) 속에서 측정하는 방법”(황정규, 2002)이며, 어떤 사상에 관한 개념의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는 태도 측정기법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오스굿과 동료들이 발전시킨 의미분석 척도는 50여개의 양극단 의미

를 갖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의미분석 척도를 여러 형태로 수정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의미공간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평가 요인(evaluation factor), 활동성 요인(activity factor), 능력 요인(potency factor)이 있고, 의미분석 척도를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측정항 자료들의 요인 수는 다를 수 있다.

의미분석 척도는 단어의 구조를 조사할 목적으로 평판이 ‘좋다, 나쁘다’ 등과 같이 상반되는 형용사가 중심이 되며, 이를 토대로 하나 이상의 대상을 평가한 다음 이미지 프로필을 각 형용사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낸다. 혹시 이때 상반되는 용어가 없거나 명확치 않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펠 척도(stapel scale)인 어의차이법이 개발되었으며(민형동, 2007:41), 유태용(1994, 1995)은 오스굿의 기법을 토대로 특성단어에 관한 적절성과 호감도 및 비호감도로 기업의 이미지를 측정하였으며, 유태용·이종구(1996, 1997)는 오스굿의 기법을 토대로 특성단어에 관한 적절성과 호감도 및 비호감도로 대학의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김성경·이장송·정현숙(2003)은 오스굿의 3가지 요소들에 준하여 자신의 종교와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76개 형용사, 20개의 개념에 적용시킨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유우열(2006)은 기독교 중심으로 종교적 이미지를 중고등학생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여러 차원의 다른 이미지 중에서 교회 이미지에 대한 36개 질문으로 물어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오스굿의 의미분석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형용사 척도를 장동환(1964)의 연구에서 밝혀진 근거와 김광웅(1977), 김광웅·박희현(2001), 최명선·류진아·조선화(2006) 등에서 사용한 척도를 <표 4>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표 4〉 대표적인 의미분석법 척도

능력 차원		평가 차원		활동 차원	
가볍다	무겁다	더럽다	깨끗하다	느리다	빠르다
약하다	강하다	검다	희다	늡다	새롭다
어리석다	똑똑하다	나쁘다	좋다	수동적	능동적

참고: 김광웅, 2008:5.

의미분석법은 특정 개념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유용한 분석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분석법은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습이론, 태도 및 가치관, 발달심리학, 언어심리학, 정신병리학,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용어 등 각각 9개 문항을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척도 점수 부여 방법은 긍정적인 형용사를 5점에 부정적인 형용사를 1점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매우 무겁다’ 5점, ‘무겁다’ 4점, ‘보통’ 3점, ‘가볍다’ 2점, 매우 가볍다’ 1점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6개 문항으로 성별, 연령, 소속대학, 소속학문계열, 학년, 장래희망분야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의미분석법을 활용하여 설문을 구성하여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설문의 구성 및 내용

차원	문항(특성용어)	척도	문항수
특성용어	가볍다 - 무겁다(X1)* 약하다 - 강하다(X2)* 어리석다 - 똑똑하다(X3) 더럽다 - 깨끗하다(X4) 검다 - 희다(X5) 나쁘다 - 좋다(X6) 느리다 - 빠르다(X7) 늡다 - 새롭다(X8) 수동적 - 능동적(X9)	5점 척도	9개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소속대학, 소속학문계열, 학년, 장래희망분야	-	6개

* ‘가볍다-무겁다’는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약하다-강하다는 요인분석 결과 기준값에 미치지 못해 제거하고 진행함.

상기와 같은 설문 구성 및 내용을 통해 살펴볼 분석 내용은 다음 <표 6>와 같다.

첫째, 특성용어를 통해 본 복지이미지의 요인 분석을 통해 차원의 명명 및 분류를 해보고자 한다.

둘째, 특성용어를 통해 본 복지이미지에 대한 차원별 일반적 인식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성별, 연령, 소속대학, 소속 학문계열, 학년, 장래 희망분야와 같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대, 활동 차원별 행정이미지의 평균비교(t-검증/F-검증)를 통해 분석해 본다.

<표 6> 본 연구의 분석 내용 및 통계방법

구분	분석내용	통계방법
분석 1	특성용어를 통해 본 복지이미지의 차원별 명명 및 분류	신뢰도 및 요인분석
분석 2	특성용어를 통해 본 복지이미지에 대한 일반적 인식	평균 및 표준편차
분석 3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대, 활동 차원별 복지이미지의 평균비교	t-검증(또는 F-검증)

2. 조사 방법

상기와 같이 구성된 설문을 가지고, 2018년 12월말에서 2019년 1월 초까지 충남지역 소재 2개 대학, 대전지역 1개 대학, 전북지역 소재 2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75부씩 배당하여 총 375명을 설문 면접했고, 총 299부를 회수하였다(<표 7>참조).

〈표 7〉 설문지 배포, 회수, 활용

대학명	설문지수		
	배포	회수	활용
충남 A대	75	55	50
충남 B대	75	65	63
대전 C대	75	75	72
전북 D대	75	60	56
전북 E대	75	44	39
합계	375	299	280

이중에서도 불성실하거나 통계적 활용 가치가 낮은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280부를 가지고 코팅, SPSS 20.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 설문지를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설문 분석 대상 인구통계학적 빈도표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63	58.2
	여성	117	41.8
연령	20세 이하	53	18.9
	21-24세	169	60.4
	25세 이상	58	20.7
소속 학문 계열	인문사회계열	161	57.5
	과학기술계열	119	42.5
학년	1학년	62	22.1
	2학년	81	28.9
	3학년	92	32.9
	4학년	45	16.1
장래희망분야	사회복지분야	103	36.8
	비사회복지분야	177	63.2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117명으로 41.8%를 차

지했고, 남성은 163명으로 58.2%를 차지했다.

연령은 21세~24세가 169명으로 60.4%를 차지하였으며, 25세 이상이 58명(20.7%), 20세 이하가 53명(18.9%)를 차지해 21세~24세 대학생이 가장 많은 설문대상이 되었다. 소속계열학문은 인문사회계열이 161명으로 57.5%, 과학기술계열이 119명으로 42.5%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92명(32.9%)로 가장 많고, 2학년은 81명(28.9%), 1학년은 62명(22.1%), 마지막으로 4학년은 45명(16.1%)으로 나타났다. 장래희망분야는 비사회복지분야 177명(63.2%), 사회복지분야 103명(36.8%)로 나타났다.

IV. 실증 분석

1. 복지이미지의 요인 분석을 통한 차원별 명명 및 분류 검증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가볍다-무겁다'(문항 1)을 제거한 Alpha계수는 0.792로 나타났다. 요인추출 방법은 처음에 회전 없이 요인분석을 시행한 후, 각 요인에 대해 높은 적재치의 변인을 최소화하는 Varimax 회전 방법을 사용하였고, 고유값 1이상을 판단하여 크게 2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약하다-강하다'(문항 2)가 요인적재치 0.400으로 낮게 나와, 이 문항을 제거한 후 요인분석을 했으며, 총분산표로서 고유값과 적재값을 표시하면 다음 <표 9>과 같다. 그리고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어 이로 인해 '회전 제공함 적재값에는 2개 요인에 대한 분산의 비율만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른 요인 1의 설명력은 약 43.418%(3.039/7)이며, 요인 2의 설명력은 약 16.951%(1.187/7)이다. 요인 1, 2로 인한 설명력은

약 60.369%이다.

성분행렬을 요인 적재치 0.5기준으로 어떤 요인에 속하는지 결정하면, 요인 1은 ‘어리석다 - 똑똑하다’, ‘더럽다 - 깨끗하다’, ‘검다 - 희다’, ‘나쁘다 - 좋다’가 공통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기대 차원」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 2는 ‘느리다 - 빠르다’, ‘낡다 - 새롭다’, ‘수동적 - 능동적’가 공통된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를 「활동 차원」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특성용어(형용사)의 요인적재값 및 요인 명명

특성용어(문항구분)	성분행렬	
	요인 1	요인 2
	기대	활동
어리석다 - 똑똑하다(X3)	0.664	0.150
더럽다 - 깨끗하다(X4)	0.762	0.109
검다 - 희다(X5)	0.809	0.226
나쁘다 - 좋다(X6)	0.754	0.181
느리다 - 빠르다(X7)	0.045	0.829
낡다 - 새롭다(X8)	0.186	0.819
수동적 - 능동적(X9)	0.281	0.615

주: KMO=0.773, Bartlett구형성 검증 유의도=515.397***(* p<0.5, ** p<0.01, *** p<0.001)

2. 특성용어를 통해 본 복지이미지의 일반적 인식

복지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형용사별, 측정차원별(기대, 활동)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 〈표 10〉와 같다. 이를 통해 복지이미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어리석다 - 똑똑하다, 더럽다 - 깨끗하다, 검다 - 희다, 나쁘다 - 좋다는 형용사 4쌍으로 구성된 기대 차원(3.52)의 평균과 느리다 - 빠르다, 낡다 -

새롭다, 수동적 - 능동적의 형용사 3쌍으로 구성된 활동 차원(2.86)의 평균으로 나타났다.

〈표 10〉 특성용어를 통해 본 복지이미지 분석 결과(N=280)

구분(차원)	특성용어(문항구분)	평균	표준편차
기대	어리석다 - 똑똑하다(X3)	3.35	0.859
	더럽다 - 깨끗하다(X4)	3.49	0.965
	검다 - 희다(X5)	3.49	0.998
	나쁘다 - 좋다(X6)	3.74	1.060
	합 계	3.52	0.748
활동	느리다 - 빠르다(X7)	2.78	0.903
	낡다 - 새롭다(X8)	2.88	0.919
	수동적 - 능동적(X9)	2.91	0.998
	합 계	2.86	0.733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이미지의 차원간 평균 비교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의 평균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소속 학문계열, 학년, 장래희망분야에 따른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의 평균 비교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 간 t-검정, F-검증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 간 성별, 연령, 소속 학문계열, 학년, 장래 희망 분야에 따라서는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은 성별, 연령, 소속 학문계열, 학년, 장래 희망 분야의 변수 집단 간에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특히, Scheff 분석 결과 연령에서는 20세 이하가 21-24세보다, 20세 이하가 25세 이상보다 평균값이 큰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 11〉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의 평균 비교(인구통계학적 특성 집단간)(N=280)

변수	집단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				비교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p)	
성별	남성	3.4279	0.79092	-2.436	0.016	
	여성	3.6410	0.66823			
연령	20세 이하	3.7925	0.63876	4.592	0.011	20세이하>21-24세, 20세이하>25세이상
	21-24세	3.4615	0.76668			
	25세 이상	3.4267	0.74045			
소속 학문 계열	인문사회계열	3.6009	0.75487	2.199	0.029	
	과학기술계열	3.4034	0.72713			
학년	1학년	3.7177	0.65048	2.807	0.040	
	2학년	3.4753	0.82500			
	3학년	3.3804	0.70757			
	4학년	3.5944	0.76554			
장래희망 분야	사회복지분야	3.6408	0.80795	2.125	0.034	
	비사회복지분야	3.4449	0.70369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의 평균 비교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 연령, 소속 학문계열, 학년, 장래희망분야에 따른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의 평균 비교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 간 t-검정, F-검증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소속 학문 계열, 장래 희망 분야에 따라서는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은 통계적으로 성별, 소속 학문 계열, 장래 희망 분야의 변수 집단간에 평균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수별 집단 간 연령, 학년에 따라서는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cheff 분석 결과 연령에서는 20세 이상이 21-24세보다, 20세 이상이 25세 이상보다 평균값이 큰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학년에서는 1학년도이 2학년보다 1학년이 4학년보다 평균값이 큰 것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5$).

〈표 12〉 복지이미지 중 활동성 차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집단간 평균 비교(N=280)

변수	집단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				비고
		평균	표준편차	t값/F값	유의확률(p)	
성별	남성	2.8119	0.73146	-1.254	0.211	
	여성	2.9231	0.73290			
연령	20세 이하	3.1635	0.63876	6.178	0.002	20세이상>21-24세> 25세이상
	21-24세	2.8087	0.74948			
	25세 이상	2.7241	0.69005			
소속 학문 계열	인문사회계열	2.8282	0.75471	-0.801	0.424	
	과학기술계열	2.8992	0.70317			
학년	1학년	3.1559	0.60873	5.377	0.001	1학년도>2학년>3학년> 4학년
	2학년	2.7942	0.76115			
	3학년	2.8261	0.76473			
	4학년	2.6296	0.66371			
장래희망 분야	사회복지분야	2.9223	0.77573	1.115	0.266	
	비사회복지분야	2.8211	0.70622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이미지의 하위 차원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조사설계 및 방법에서 제시한 특성용어와 일치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 특성 용어의 조사 설계에서의 차원인 능력과 평가가 복지이미지는 별 의미의 차이를 보이고 않아, 이를 혼용하거나, 다른 분류

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대라는 차원으로 명명을 재설정하였다. 이는 능력과 평가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능력과 평가에 대한 기대치, 즉 복지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다거나 해줄 수 있는 능력 또는 이에 대한 평가로 생각해 기대로 명명하였다.

한편, 느리다 - 빠르다(X7), 낡다 - 새롭다(X8), 수동적 - 능동적(X9)와 관련한 특성용어는 조사설계 및 방법에서 제시한 특성용어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차원은 복지이미지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기관들의 현실에 대한 대응 및 변화, 복지서비스 등 복지정책의 산출물에 대한 영향력 등 복지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이 활동 차원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복지에 대한 기대는 현실 및 실제보다는 그 기대가 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활동 차원의 복지이미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인구특성상 평균비교를 통해 복지이미지 중 기대 차원에 대한 성별, 연령, 소속 학문계열, 학년, 장애 희망 분야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함이 나타났으며, 복지이미지 중 활동 차원에 대한 연령, 학년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함이 나타났다.

평균비교 분석을 통해 연령, 학년은 기대 차원과 활동 차원 모두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학년이 저학년(1학년)에서 보다, 고연령이 저연령 대학생보다 복지에 대한 기대와 활동 차원의 이미지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가면 학문적 소견과 사회 경험의 축적되는데 오히려 복지에 대한 기대 차원과 활동 차원에 대한 복지이미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고등교육 현장을 대변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로와 취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사회연대와 공동체 이익을 고민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

또한, 복지에 대한 기대는 보통수준으로 인식하지만, 이에 비해 복지활동, 즉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구체적인 복지활동이나 복지체감도에 대해서는 기대 차원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그간 복지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경험에 따른 이미지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한, 국민(또는 시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직접 묻는 추상적 현상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를 파악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소속 학문 계열, 장래 희망 분야는 모두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다.³⁾ 이러한 교육적 차원의 변수에 따라 복지이미지가 구별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 대해 복지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복지의 역할과 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평판이 복지이미지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교육이나 수업을 통해 배우고,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복지를 인식하고 복지이미지를 갖는다. 즉, 일상적 경험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복지에 대한 선호, 신뢰 등도 복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적 특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가 각종 통제를 통해 외부효과를 줄이도록 노력했으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과 설문조사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대전, 충남, 전북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280명에 한정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조사분석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뒷받침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므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3) 교육학에서는 이러한 변수들과 '인식론적 신념'이 차이가 나타남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행정학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행정학 교육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권정만 (2009).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 특성용어를 통한 적절성과 호오도 분석을 중심으로. 「불교학 리뷰」 6: 117-151.
- 권정만 (2010).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II): 충남지역 불교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간의 불교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불교학 리뷰」 7: 217-246.
- 권정만·김학만(2015).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복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7(3): 245-272.
- 김광웅 (2008). 의미분석법에 의한 청소년의 정보매체 개념 이미지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24: 1-16.
- 김광웅·박희현 (2001). 의미분석법을 통한 한국 대학생의 정치 개념에 대한 의미 분석. 「학생생활연구」 23: 1-18.
- 김상규 (1984). 사회복지의 이론체계. 「사회복지연구」 Vol.12: 25-53.
- 김희자 (2013).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16: 59~88.
- 민형동 (2007).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광준 (2013).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서울: 양서원.
- 원석조 (2009).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공동체.
- 유영옥 (2007). 「상징과 기회의 사회과학」. 서울: 홍익사.
- 유우열 (2006). 「중고등학생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분석」.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태용 (1994). 기업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29-54.
- 유태용 (1995). 기업이미지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1): 141-159.
- 유태용·이종구 (1996). 대학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41-60.
- 유태용·이종구 (1997). 대학이미지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 및 대학간 이미지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2): 31-54.
- 윤문구 (1998). 일본에 있어서 복지개념의 형성과 변화. 「한국정책학회 1998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341-355.
- 윤석경·권정만 (2012). 사회복지에서의 복지 개념과 조선왕조실록의 복지 용례

- 의 비교와 함의. 『한국공공관리학보』 26(2): 63-87.
- 이장송·김성경·정현숙 (2003). 종교간 상호 인식 양태에 관한 연구: 한 특수대학 학생들의 종교간 태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11(1): 263-290.
- 이혜경 (2006). 「행정이미지의 형성요인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동환 (1964). 한국어의 의미론적 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집』9: 191-206.
- 전남진 (1983). 사회복지 개념의 이론적 통합체의 정립을 위한 일고찰. 『한국사회복지학』. 4: 15-31.
- 최명선·류진아·조선화 (2006). 여대생의 전문직 여성에 대한 이미지 연구. 『청소년복지연구』8(2): 143-157.
- 古川孝順, (1999). 『社會福祉概論』. 日本 東京: 有斐閣.
- Cline, R. S. and Alexander, Yonah(1984) Terrorism: The Soviet Connection New York: Crane Russak.
- Osgood, C. E., Suci, G. J. and Tannerbaum, P. H.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Wardlaw, Grant(1994). Political Terrorism: Theory and Counter-Measure, 3r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isty Press.
- Wilkinson, Paul(1986). Terrorism and the Lieberal State, 2n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Welfare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Using
the Sematic Differential Technique

Wonsik Lee
(Geumgang University)

This study tries to look at the perception of welfare by using Osgood's sematic differential technique to identify the welfare image of university students. In particular, research by semanticism among measurement methods by component composition characteristics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related to welfare awareness or welfare image. As such, this study analyzes welfare images through characteristic terms to try to elicit factors and verify naming and classification. Also, through the overall recognition of the welfare image and the level comparison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college students' welfare awareness is to b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factors analysis on the lower dimensions of the welfare image is positively recognized as having some capacity for the expected dimensions of the welfare image, but negative recognition of the level of activity. In addition,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average population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between groups in gender, age, affiliation, school year, and future hope for the expected dimensions of the welfare image, and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for activity level and mean between groups in grade.

Key Words: Welfare, Welfare Image, Welfare Recognition, sematic differential technique, semantic discrimination law

논문신청일: 2019.03.30.

논문심사일: 2019.04.11.

게재확정일: 2019.04.24.